

##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도록”

### 덕유산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 '자연 행복 나눔터' 개소식

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은 최근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구천동 삼공탐방로 입구에 새로 마련한 덕유산 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국립공원 자원봉사 자연 행복 나눔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덕유산 자원봉사단(덕유산원추리봉사단)의 활동공간이자 봉사거점으로 활용할 자원봉사센터를 원비함에 따라 국립공원사무소와 자원활동가들의 자축 행사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수부인, 사회복지과장, 설천면장 등 지자체, 구천동농협조합장, 새마을무주군지회장, 설천면주민자치위원회장, 구천동관광연합회, 구천동상인연합회, 구천동학한산학회 등 지역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새로 개소한 센터는 "국립공원 자원봉사 자연 행복 나눔터"로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자연을 온전히 보전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생태복지의 행복을 함께 누리며 이 행복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전달하고 나누는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덕유산 자원봉사단은 금년부터 "덕유산원추리봉사단"으로 명명하고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덕유산국립공원 무주구천동 삼공탐방로 입구에 새로 마련한 덕유산 국립공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국립공원 자원봉사 자연 행복 나눔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식물복원센터와 연계, 국립공원 멸종위기종 및 특정식물의 파종·분갈이·증식과 이를 향락병에 이식하는 식물 복원 자원봉사 등을 주도하였으며,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통하여 역량을 개발하고,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 탐방안내센터, '구천동어사길' 등 거점 중

심으로 많은 탐방객들에게 유익한 해설 및 안내 활동을 벌이는 등 활발한 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은 자원봉사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더욱 진흥할 계획이며, 지역봉사자 주도의 감명 깊은 문화탐방 페라더임 조성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진로직업박람회서 진로상담관 운영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는 최근 논산공업진흥공장에서 진행된 제4회 논산시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에 참여해 직업체험관과 진로상담관을 운영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의 논산시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참여는 청소년들이 적성과 흥미를 찾아 미래사회의 창조적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얼리디자인과 '보석디자이너' 직업체험관에는 약 3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주얼리디자인과 홍성백 교수가 직업체험 멘토로서 보석디자이너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과 진로 탐색 과정을 도왔다. /익산=정왕원 기자



###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목요일(월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8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서산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호지사 010-664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5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해바라기봉사단, 보훈가족에 나라사랑 감사 태극케이크 전달

전주시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5월 완산구 관내 보훈가족 37가정에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은 나라사랑 감사 태극 케이크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보훈가족에게 감사를 드리고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보훈가족의 명예를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 정성을 담은 케이크를 전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해바라기봉사단 50여명은 봉사단에서 준비한 케이크에 직접 만든 태극기를 꽂고 보훈가족을 방문하여 케이크를 전달해 드리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훈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언자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회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보답하기 위해서 보훈가족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우리 해바라기봉사단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결혼

▲박혁(전주중부새마을금고 근무, 박중호 전 덕진구청장·현 전북도전주장학속원장·김순씨 아들)군·오세희(오병남·김미희씨 삼녀)양= 일시: 6월 10일(토) 오후 1시,장소: 전주N타워 컨벤션센터 2층 아이리시홀, 연락처: 박중호(010-6600-9107)

### 정읍보건소, 한솔초 5학년생 대상 건치 퀴즈왕 선발대회 가자

정읍시보건소가 최근 한솔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제72회 건치 퀴즈왕 선발대회를 가졌다.

대회에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치아 건강 상식에 대한 열띤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임수빈(2반)과 김생익(3반) 학생이 각각 퀴즈왕과 아자상을 수상했다.

보건소는 "어린이들에게 어릴 적 치아 관리가 평생 간다는 중요한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구강 보건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구강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한전 남원지사, 과수농가 방문 일손돕기 '구슬땀'

한전 남원지사는 5일 직원들과 함께 대강면 수흥리 과수농가를 방문, 복숭아 봉지 싸우기 작업 및 열매 수확 작업에 일손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남원지사 직원들은 농가와 함께 작업하며 과수재배의 어려움과 농촌의 인력부족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눴고, 작업을 마친 후 농가주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제 일처럼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 정말로 감사하다"며 고마움의 인사를 건넸다.

최상철 지사장은 "앞으로도 남원지사는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안재용 기자



### 정읍골프선수단, 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 50만원 기탁

지난 4월 부안에서 열린 제54회 전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정읍골프선수단(감독 김봉규)이 지난 5일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김생기)에 장학기금 50만원을 기탁했다.

김봉규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 도민체육대회 우승 상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에 앞장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송천2동사무소, 호돌이감자탕 독거어르신 중식 봉사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사무소는 5일 호돌이감자탕 후원으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 20여명을 모시고 중식 봉사를 실시했다.

호돌이감자탕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1회 송천2동 관내 외롭고 소외된 독거노인 및 장애노인 등 어르신 20여명을 초대해 정성스럽게 마련한 감자탕을 대접하고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등 정과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한필수 송천2동장은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안효준사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렇게 자그마한 나눔의 손길이 모여 우리들을 따뜻하고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효준 호돌이감자탕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 기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기사제보 288-9700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여론진흥재단